

<토론요지>

“Paradise Lost” or “Paradigm Lost”?

서영조

동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I. 머리말

논평의 대상은 이 글이 제시하고 있는 세세한 내용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를 보는 관점 즉 이론적 시각의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에 대한 판단보다는 세상에 대한 판단에 대한 판단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저자는 현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철학의 과제로 삼고 있지만, 논평자는 철학의 과제는 현실을 관찰하는 방식에 대한 관찰에 있다고 여긴다. 철학 자체가 윤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윤리는 철학의 한 대상에 불과하다.

저자는 아펠과 하버마스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논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논평자는 그들과 대립적 관계에 있는 루만의 이론에 근거할 것이다.

II. 윤리학 비판과 사회학적 도덕이론

루만은 자신의 입장을 “사회학적 도덕이론”이라고 하면서 기존의 윤리학과 대비시키고 있다. 윤리학이란 그 명칭이 유래된 과거의 즉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윤리학을 말하는데, 루만은 “이 윤리학은 선(善)은 자기동인적으로(selbstmotivierend) 작용한다는 것을 전제한다”라고 하면서 그 특

정을 간단명료하게 지적하고 있다. (Luhmann 1997, 17) 이에 반해 사회학적 도덕이론이란 도덕에 대한 과학적 또는 기능적 탐구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인간학적 사유전제들로부터 벗어나서 도덕을 사회체계의 한 구조로서, (...) 도덕이란 사실을 탈도덕적인 개념을 가지고 파악하려는 시도”(Luhmann 1978, 43)를 의미한다.

루만에 의하면 도덕을 통하여 사회를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는 근대사회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덕의 고유한 특성인 보편성은 이제 포기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근대사회는 자기준거적인 기능적 체계들로 분화되어 통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Luhmann 1980, 310) 풀이해서 말하면 정치체계, 경제체계, 교육체계, 법률체계 등은 고유의 코드를 지닌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체계이기 때문에 이들을 통합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좌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회의 정치체계에 있어서만 정치는 모든 다른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통용된다. 그러나 이와 마찬가지로 교육체계는 교육이 모든 다른 기능들보다 중요하다는 전제하에서만 기능적으로 특화될 수 있다. 이는 모든 기능영역들에도 마찬가지로 유효하다. 사회에서 어떤 기능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다시 기도하는 것은 기능적 분화라는 원칙과 모순된다.” (Luhmann 1978, 35) 오늘날 교육자들은 교육이, 정치가들은 정치가, 경제인들은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루만의 이와 같은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에서의 윤리학의 과제는 “도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Luhmann 1990, 40) 즉 윤리학은 더 이상 보편적 규칙에 대한 철학적 논증이 되어서도, 이에 기초한 도덕적 호소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기존의 윤리학처럼 이를 계속 고집한다면 윤리학은 더 이상 학문(과학)의 지위를 누릴 수 없다. 왜냐하면 윤리학은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좋은 곳에다 놓고 나머지를 모두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리학의 “정치화”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그리하여 루만은 “윤리학에게 도덕의 논증을 포기하고, 대신에 스스로를 도덕의 성찰이론으로서 이해할 것을 충고한다.” (Luhmann 1989, 360)

III. 상호주관성과 이중적 컨팅전시

다른 여러 문제들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상호주관성”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아펠과 하버마스의 이론의 핵심은 상호주관성에 있다. 그러나 루만은 상호주관성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루만은 상호주관성이란 개념을 “이중적 컨팅전시”라는 개념으로 전환한다.

잘 알려진대로 루만의 특징은 사회를 체계-환경의 관점에서 파악하는데 있다. 사회 관계를 체계-환경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어떤 체계도 -- 도덕적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하여서는 심리 체계를 말한다 -- 다른(심리) 체계의 작동 과정에 대해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 예고와 알터로서의 각각의 심리 체계는 서로에게 불투명한 “블랙 박스”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예고와 알터는 서로 관계를 맺게 되는데, 관계를 맺는 순간 “이중적 컨팅전시(doppelte Kontingenz)”라는 문제가 생긴다.

예고와 알터로서의 인격 체계들이 서로 서로 관계를 맺게 되면, 이중적 컨팅전시라고 묘사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예고와 알터는 서로서로 컨팅전트하게 행위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타자의 행동에 대한 모든 경험과 모든 기대는 필연적으로 컨팅전시의 이러한 형태를 취한다. 동일한 것이 자기 경험에도 적용된다. 왜냐하면 이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화를 통해서만 생성될 수 있고, 아울러 자기 분석을 위해서도 체계의 과정적 수용 능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고에게서나 알터에게서나, 각각 다른 인격 체계에서 둘 다 모두에게 사회적 관계는 이중적 컨팅전시의 형태를 취한다. 아울러 두 사람 모두 상황이 이렇다 하는 것을 알고, 각각에서 타자들도 이를 안다는 것을 또한 안다. 그들은 그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 자체에서 이를 경험하고, 그들이 타자에게서 서로서로 환경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행동의 전제로서 받아들여야만 한다. (Luhmann 1978, 45)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 “이중적 컨팅전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루만에 의하면 파아슨스는 이 문

제를 가치 합의, 곧 문화적으로 전승되어 온 합의적 규범 지향성으로 해결하고자 했으며, 따라서 사회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고 한다. (Luhmann 1978, 45; 1984, 149-150) 그러나 그는 이러한 해결책은 불충분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가치 합의가 어떻게 생성되는가?’라는 근본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루만은 “소음 원칙으로부터의 질서(order from noise principle)”라는 체계 이론의 일반적 논리에 의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에 따르면 “이미 고착화된 가치 합의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이중적 컨팅전시의 문제는 [...] 바로 우연들을 빨아들인다. 그것은 우연에 민감하게 만든다. 가치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고안해 낼 것이다.” (Luhmann 1984, 150f.)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중적 컨팅전시의 기본 상황은 두개의 블랙 박스가 어떤 종류의 우연인지는 몰라도 서로 서로 관계를 맺는 상황이다. 각각은 체계와 환경의 관계로서 다른 체계가 어떻게 경험하고 행동하는지 모른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미를 경험하는 심리 체계”로서의 인간의 세계에 대한 인식 능력과 정보 처리 능력은 아주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개별적인 경험과 행동이 커뮤니케이션으로 전환되기는 불가능하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경험과 행동의 의미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의미의 결정은 결코 독자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 그것은 한 체계가 다른 체계와 관계할 때 비로소 일어난다. 각각의 독립된 체계로서 알터와 에고 곧, 두개의 블랙 박스는 서로서에게 불투명하고, 스스로도 “맹목적”으로 작동하지만(이중적 컨팅전시), 서로서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스스로에게도, 타자에게도 어느 정도 투명하게 된다는 것이다. “블랙 박스들은 그것들이 서로 만날 때, 말하자면 흰색 성질, 곧 상호 교류를 위한 충분한 투명성을 생성한다.

그것들은 단순한 가정을 통해 현실 확실성(Realitätsgewißheit)을 생성한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 알터에고(alter Ego)에 있어서 가정에 대한 가정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Luhmann 1984, 156f.) 이를 통해 각 체계는 자신을 또한 타자를 관찰할 수 있게 되고, 관찰한 것에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관찰된 것으로부터 배우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의 신생 질서가 초래된다. 그것은 자신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들의 복합성에 의해 조건지워지지만, 이 복합성이 또한 미리 계산되고 제어될 수 있다는 사실과는 무관하다. 우리는 이 신생 질서를 사회적 체계라고 부른다.” (Luhmann 1984, 157)

IV. 도덕과 정치

마키아벨리가 정치와 도덕을 분리한 이후 정치학은 그의 근대성을 탈도덕성에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은 늘 정치학의 중심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참된 정치는 도덕에 먼저 충성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다”는 칸트의 주장(Kant 1977, 243)이 마치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슈미트(Carl Schmitt)는 칸트가 살았던 18세기를 “인도적-도덕적 시대”라고 단정하고, 20세기를 “중립화와 탈정치화의 시대”로 묘사하지만(Schmitt 1991) 도덕의 정치에로의 회귀성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루만의 논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 즉, 정치체계는 독자적인 코드를 가진 독립체계로 공고화되고 있는 것에 반해, 정치를 설명하는 개념은 여전히 “18세기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호페(Otfried Höffe)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에 있어서 도덕은 여전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Höffe 1991) 이는 루만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정치코드와 도덕코드가 다르다는 것을 말할 뿐이다. 예컨대 어떤 정치가가 뇌물을 받았든지, 원조교제를 했다든지, 어떤 특정한 날 림싸롱에서 술을 마셨든지 해서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도덕적” 고려가 아니라,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즉, 이런 소식을 접한 상대방 정치가는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뿐이지 도덕적 논쟁으로 이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예들은 상황을

조정하는 것은 윤리원칙들이 아니라, 정치라는 자동생산(Autopoiesis von Politik)의 맥락에서 나타나는 기능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치가들의 도덕적 범칙들은 정적(政敵)들의 승리의 함성으로 이어지지만, 사람들은 그것들이 도덕적 판단력을 증명하는 기회로서가 아니라 정치적 기회로서 이용된다는 사실을 곧 알게된다.” (Luhmann 1991, 499) 따라서 정치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루만은 다음과 같이 반문한다. 만약 도덕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저항인가? 내전인가? 그리고 때로는 선거에서 도덕적 이슈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것도 여전히 정치적인 문제이지 도덕적인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리하여 그는 또 다음과 같이 반문한다. 투표자를 도덕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가? 좋은 투표자? 나쁜 투표자? (Luhmann 1991, 498) 그에 의하면 만약 정치와 관련된 도덕이 있다면 그것은 공정성(Fairneß)일 것이라고 한다. 스포츠에 있어서 도핑이라는 도덕적 문제가 스포츠 자체의 코드 가치, 즉 승패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제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에 있어서도 정치적 코드를 지키기 위한 가치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루만은 공정성을 “코드를 지키기 위한 도덕”이라고 묘사한다. (Luhmann 1991, 499) 그렇긴 하지만 루만은 이 공정성을 “보다 높은 무도덕성의 수준(a level of higher amorality)” 또는 “도덕적 중립화로부터 파생한 도덕원칙”이라고 묘사하면서 그것을 도덕이라고 해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 (Luhmann 1993, 1005)

이러한 루만의 논의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다. 정치를 도덕화하는 것이 정치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정치가 아닐까? 정치현상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은 정치학연구의 가장 쉬운 길이 아닐까?

“그리하여 아주 새롭게 세워진 해방의 사원들(Tempeln der Emanzipation) 안에 이미 다시 잡초가 무성히 자라고 있다. 그리고 신도들은 제례의식을 이미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Luhmann 1984, 444)

참 고 문 헌

- Höffe, Otfried. 1991. "Eine entmoralisierte Moral: Zur Ethik der modernen Politik" In: *Politische Vierteljahresschrift*. 32. Jg., Heft 2. S. 302-316.
- Kant, Immanuel. 1777. "Zum ewigen Frieden Anhang." *Schriften zur Anthropologie, Geschichtsphilosophie, Politik und Pädagogik* 1. Werkausgabe XI. Frankfurt a.M.: Suhrkamp.
- Luhmann, Niklas. 1978. "Soziologie der Moral." In: ders. und Stephan H. Pfürtnner (Hrsg.). *Theorietechnik und Moral*. Ffm: Suhrkamp.
- Luhmann, Niklas. 1981. "Wie ist soziale Ordnung möglich?" *Gesellschaftsstruktur und Semantik*. Band 2. Frankfurt/a.M: Suhrkamp.
- Luhmann, Niklas. 1984. *Soziale Systeme: Grundriß einer allgemeinen Theorie*. Frankfurt/a.M: Suhrkamp.
- Luhmann, Niklas. 1989. "Ethik als Reflexionstheorie der Moral." *Gesellschaftsstruktur und Semantik*. Band 3. Frankfurt/a.M: Suhrkamp.
- Luhmann, Niklas. 1990. *Paradigm lost: Über die ethische Reflexion der Moral*. Frankfurt/a.M.: Suhrkamp.
- Luhmann, Niklas. 1991. "Politik und Moral." In: *Politische Vierteljahresschrift*. 32. Jg. Heft 3. S. 497-500.
- Luhmann, Niklas. 1993. "The Code of the Moral." *Cardozo Law Review*. Vol. 14, No. 3-4 (January). pp.995-1009.
- Luhmann, Niklas. 1996. "The Sociology of the Moral and Ethics." In: *International Sociology* 11, 1. S. 27-36.
- Luhmann, Niklas. 1997. "Politik, Demokratie, Moral." In: Konferenz der Deutschen Akademien der Wissenschaft (Hrsg.). *Normen, Ethik und Gesellschaft*. Mainz am Rhein: Verlag Philipp von Zabern. S.17-39.
- Schmitt, Carl. 1991. "Das Zeitalter der Neutralisierungen und Entpolitisierungen." In: ders. *Dér Begriff des Politischen*. Berlin: Duncker & Humblot. 79-95.